

3) 반응

예배는 믿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예배자의 모든 것, 즉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몸 전부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균형을 잡은 사랑스런 반응이며,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나아가는 더 깊은 반응이다.” –웨렌 바이숍–

※ 찬양으로 반응하라!

찬양사역자인 달린 체크이 “찬양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곧바로 뛰어들게 하는 믿음의 폭발이다”라고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바로 ‘찬양’(Praise)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방적 행위로만 끝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고귀한 ‘교감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귀와 영화, 신적 권위와 통치 능력에 연결 되는 ‘영적 통로’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 악적 탁월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 칭찬, 고백, 인정, 감사 등과 같은 ‘관계’의 측면이 먼저입니다. 결국 예배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인격적 교제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는 삶의 산물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최고의 반응인 것입니다.

※ 감사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곳은 천국이요, 또 다른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이작 월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으로 감사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됩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 좋다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을 때는 엔도르핀보다 5천 배나 강력한 다이도르핀이 나온다고 하지요. 이것이 감동 호르몬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그 이유가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감사’(Thank)와 ‘생각’(Think)은 영어로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이 환경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불평과 염려가 나지만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된다.

※ 성만찬으로 반응하라.

개인의 감사도 있지만 공동체의 감사도 있습니다. 공동체 감사의 정점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배의 4중 구조는 나아감, 말씀, 감사의 응답, 파송. 이 4중 구조는 초대 교회 예배 모임의 두 기둥인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와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감사의 응답’은 어쩌면 공동체 전체가 진정한 예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요소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반응하는 응답 기도, 평화 나누기, 헌금, 내적 회개, 헌신 찬양, 축복과 교제 찬양 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만찬입니다. 칼뱅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에서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 성만찬에 참여하게 한 관례는 분명히 악마의 농간이다. 주님의 만찬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매주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도록 거행되어야 한다.”라고 안타까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성만찬으로 기념합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섬김과 낮아짐과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희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그분과 더욱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든 응답의 기도와 헌신의 찬양이든, 오늘날 예배 갱신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말씀’ 이후 ‘감사의 응답’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주요 소식

1) 목장 모임

7월 28일(주일),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교제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 주시고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세대 예배

8월 4일(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3) 8월은 재충전의 달

8월 한달은 목회 안식월로 보냅니다.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양육 사역을 휴식하며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며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성령집회는 8월 2일(금) 까지 계속됩니다.

4) 8월 2일(금) 금요성령집회 강사

서울 동안교회 한기석 목사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5) 아메니다 시니어 센터 1일 봉사자 모집

밴쿠버 한인문화 축제에 참석하시는 아메니다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안내하는

1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푸짐한 식사 제공 및 학생 봉사시간 부여)

· 일시: 8월 3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소: 버나비 센츨릴 파크내 Swangard Stadium

· 문의: 권태욱 담임목사

■ 교역자 동정

1) 여름 휴가 윤은수 목사 (7월 30일(화)–8월 6일(화))

■ 8월 교회 주요 행사 안내

1) 씨리한인교회 마더와이즈 1기 6월 5일 - 8월 7일 (수요일 10:30 - 12:00pm)

씨리한인교회 합심기도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니다.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3. 씨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 (영아부/유아부)

• 시무 장로 김항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중

• 반 주 김민경

코람데오
Coram Deo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씨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